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 漢玉 주 간 高 有 峰
편집국장 高 榮哲 편집 金 性範
발행소: 제주 대 학교 신문 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직) 55-6156 (교) 55-6141

제401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나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0년 9월 25일 화요일

1

공공요금 절감방안 대책마련 시급

월평균 2천5백만원이나 지출
전기·수도·전화사용료로

경리과에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90년도 공공요금집행현황을 보면 전기·수도·전화·우편요금 등으로 한달평균 2천5백여만원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지난 8월까지 총 2억9백여만원의 전기·물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 사용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보화사회」 주제 서정옥씨 초청강연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라는 주제의 '90대학 순회 특별 강연회(강사: 서정옥·한국전기통신공사 제2부사장)가 (재)정보문화센터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1시부터 2층강당에서 있었다. 이 강연에서 서정옥씨는 「지금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풍요롭고 편리한 정보화사회의 이상향은 물질과 에너지가 정보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화사회는 풍부한 물질과 에너지의 바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보수요가 개별화·다양화 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면 그 다양화되는 수요에 구식구식 용이주도하게 대응하도록 선택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뉴미디어이며, 이러한 뉴미디어의 주역은 기술도 아니고, 전기통신 사업자도 아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년별로는 3학년이 5천4백33원으로 가장 많이 대출 받았고, 월별로는 중간고사전에 리포트제출 등으로 인해 서인지 4월에 가장 많이 대출되었다.

〈표1〉 90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월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계
1	15,133	6,929	2,032	623	24,717
2	16,476	5,937	1,822	1,323	25,558
3	14,975	6,347	1,339	1,217	23,878
4	16,398	7,675	2,241	1,137	27,451
5	18,010	7,416	2,308	1,045	28,779
6	15,779	7,603	3,518	864	27,764
7	14,634	5,581	3,988	684	24,887
8	13,560	5,576	5,313	1,666	26,116
합계	124,965	53,064	22,562	8,559	209,150

민자당분쇄·민중생존권쟁취 진군대회 무산

시내서 5시간동안 기습시위

「민자당 일당독재 음모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우투파이라운드 및 특조법 저지)를 위한 청년학도 진군대회」가 지난 21일 오후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의장: 허준호·경제4) 주최로 시내 일원에서 열렸다.

정리집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이 최루탄 발포로 저지하자, 20여분동안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하다 끝내 정리집회를 갖지 못하고 11시40분경 경찰의 해산과 더불어 자진해산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민주광장에서 2백여명의 학우가 모인 가운데 총학생회 주관하에 「민자당 일당독재 음모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갖고, 「민중생존권 쟁취와 민중운동 탄압 분쇄의 깃발을 들고 전민중적 연대투쟁으로 반민자당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은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내각재개헌은 민자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필수불가결적 요소이며 이에 정국회적 성립되지·특조법저지·U·R협상타개 투쟁으로 총궐기 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학내시위를 벌였다.

「전국...태권도대회」
본교생 7명 출전

오는 28일부터 3일간 국기원에서 열리는 「제13회 회장기태권도대회」에 본

소비조합 정관개정안 26일 심의

학교측 “일정액 출자해야 조합원자격 부여”

「조합원자격」·「출자금의 환급」 조항등 이견조정 불가피

소비조합 정관 개정안과 소비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2회 소비조합 임시이사회」가 26일 오후 2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학교당국과 학생회측에서 제시한 소비조합 정관 개정안 두개를 갖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새로운 소비조합 정관을 공표할 예정이다.

학교당국과 학생회가 내놓은 소비조합정관 개정안중 주요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출자와 책임

○학생회안: 현행정관과 동일
○학교당국안: 조합원은 가입과 동시에 출자해야 하며, 출자

액과 납입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출자금의 환급
○학생회안: 현행정관과 동일

○학교당국안: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는 출자된 자본은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임원직 및 임원
○학생회안: 이사장 1인, 이

사 12인 이내, 감사 4인(직원 2인, 학생 2인)이며, 이사중 1인은 상임이사로 한다.

○학교당국안: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20인 이내

(교수 8인, 교직원 6인, 학생 6인), 감사 4인(교수 1인, 교

직원 1인, 학생 2인)
○임원회의 선의

○학생회안: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가 되

며, 감사는 조합원중에서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한다. 이사는 총장, 총학생회장, 원의 출자금액 결정 및 상환, 기

간권복지위원장, 학생대표 4인, 소비조합 중임원대표 1인, 교수

대표 3인으로 한다.

○학교당국안: 이사장은 정교수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하며, 총장

이 이를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부교수 이상으로 이사장 선임방

법에 따른다. 감사는 4인으로 학교 교수 및 교직원대표 각 2인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학생대표 각 2인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제4장 이사회
△의결사항

○학생회안: 정관의 개폐, 규

칙의 제정,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 방침, 예·결산 승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재무회계, 적립금 및

임여금의 처분, 기타 중요한 사

항.
○학교당국안: 정관의 개폐,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명 제정, 사업부

및 이사회간사 추천,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결산의 승인, 재산

의 취득·처분 및 적립금의 결정, 적립금 및 임여금의 처분, 조합

원의 출자금액 결정 및 상환, 기

타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

요한 사항

△제6장 회계
△자본금

○학생회안: 이 조합의 운영자

금은 차입금, 전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학교당국안: 이 조합의 자본

금은 조합원의 출자금, 차입금, 전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한편, 학교당국과 학생회측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각 조

문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어떻

게 이견이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10월 2일 발간예정인 402호는

중간고사와 연휴로 인해 휴간됨을

알려드리며, 다음 신문은 10월

23일 발간됩니다.

10월 학사일정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차 공개발표: 10월 8일~12일

△2학기 중간고사: 10월 15일 이전

△수업주주 2/4: 10월 15일

도서 2백여권 기증

지난 22일 在日 제주청년회

「제일 제주청년회 도서기증식」이 지난 22일 金漢玉총장과 제일 제주청년회모국방문단(단장: 林友憲·제일교도2세 오모사카 거주) 일행을 비롯, 8개단체회장, 康順泰 도서판매장, 교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도서기증서 전달, 총장인사, 제일제주청년회장인사 순으로 진행된 도서기증식에서 제일제주청

년회는 약 1백만권(한화 약 5백만원) 상당의 농업과 수산분야 학술도서 2백여권을 본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한편 이날 도서기증식에 참석했던 제일제주청년회장 林友憲씨는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증한 책들이 제주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대의원총회 무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늦어질듯

'90학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총대의원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정국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8월31일 있었던 '90예산심의 결산보고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각 자치기구 감사결과 보고, '9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대비할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구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총대의원회 의장(이중화·해당4)은 「대의원총회가 각 학과·정·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대별·각학과 측제 준비를 하더라도 정국수가 부족한 것 같다」며 무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무산된 정기대의원 총회의 개최일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POSCO

POSCO

新入社員募集

浦項製鐵은 다음世代的幸福과 다음世紀의繁榮을約束하는企業입니다.
10년앞을 내다보는智慧로 21世紀의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浦項製鐵의無限한 가능성과 함께成長할人材를 널리 찾습니다.

1. 募集分野 및 應試資格

募集分野	人員	應試資格
技術系 機械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金屬工學 化學工學	250名	· '64. 1. 1 이후 출생자 단, 碩士는 '62. 1. 1 이후 출생자 · 4년제 正規大學(院) 募集分野 該當學科 또는 關聯學科 卒業者 및 · '91. 2월 卒業豫定者 · 兵役畢 또는 免除者 ※ 語學專攻者는 事務系分野 應試可能
事務系 經營學, 經濟學 貿易學, 法學 行政學	150名	

2. 銓衡方法

- 1次銓衡: 筆記試驗(英語, 專攻)
- 2次銓衡: 面接, 身體檢査(1次合格者에 限함)

3. 1次銓衡(筆記試驗)日時 및 場所

- 日時: '90. 11. 4(日), 午前 9時
- 場所: 弘益大學校(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소재)

4. 提出書類

- 入社志願書(當社 所定樣式).....1部

5. 志願書交付 및 接受處

交付處	接受處
· 各大學 學生處 또는 就業輔導室 · 當社 事務事務所: 中구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서울시청 좌측 소재) · 포항: 本社 1層 案内室 · 光陽: 太陽製鐵所	(790-785)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浦項綜合製鐵(株) 人力管理部 人力課

6. 接受期間 및 接受方法

- 期間: '90. 10. 8(月)~10. 24(水)
- 方法: 郵便接受

7. 其他事項

- 書類提出는 郵便으로 하되 마감일 到着分에 限함
- 國家報勳對象者로서 證明書 提出者는 關係法令에 의거 優待함
- 其他 詳細한 事項은 接受處로 問議바람
(電話: 0562-70-0693~0696)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社説

총장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는 1년전 도도하게 흐르는 시류를 확인이라도 하듯 직선제 총장을 맞는 기쁨을 맛보았다. 많은 기대를 걸었고 아직까지 그 기대는 적금도 희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래도 세월은 흘러 지난 1년을 반추할 계기가 되었고, 반추하는 자리이기에 그 동안에 공과를 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취임사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대학의 민주화·자유화의 정립과 숭고한 인간 정신과 과학 기술이 조화를 이룬 각 학문간의 균형 발전을 강조한 사실을 알고 있다. 나아가 연구기금 확보·학술교류 추진·도서관 확충·대학협의회 구성 등과대학 중심의 대학운영·장기발전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구상을 밝힌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존경·신뢰·사랑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 힘은 여러 사람에게 있고 그 힘은 스스로가 세운 도덕률에 따라 행사하게 한다는 소박한 뜻이 민주시민, 자율이 아닌가. 그러나 보다 나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그 역량을 집중화시키기 위하여 거를 것은 걸러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때 그 절차 자체가 민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나아가 자율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그 결과는 옥석이 되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취임 초기에 우리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대자첩(가칭)」이 음두사미가 되어 우리 결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각기 구성단체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존중해서 미리 토의할 영역을 정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학협의회(대자첩)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대학 구성원 전부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대학협의회가 구성되면 다수의 횡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리라는 걱정은 않아도 된다. 의견 수렴의 성격이 강하므로 스스로 세운 도덕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 역량이고 자율 기량이 될 것이다. 협의체만 구성되면 제주대학교란 나무를 성장시킬 버팀목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단과대학 중심의 대학운영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며, 장기발전계획 수립도 절반은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기금 조성을 위하여 대외활동도 마음껏하여 그 성과 또한 괄목하게 될 것이다.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게 될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발전의 전제가 되는 학원인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꼭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장실이 점거되는 사태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취임시 공약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심치 않으며, 남은 3/4의 임기 동안 모든 대학운영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행되기를 우리들은 소망하고 있다. 아울러 취임 1주년을 맞아 축하의 뜻도 함께 전한다.

無 論 有 說

인간을 위한 물리학



康 禎 友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회를 영위하고 생활하여 갈래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연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인간과 자연계 또는 과학과의 관련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인은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과학과 인간사회의 관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까지 사람들은 과학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패러디(Michael Faraday 1791~1867)의 電磁氣 誘導의 법칙이 나중에 발전기의 발명에 응용되어,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의 기틀을 만든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패러디 자신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기대하여 연구한 것은 아니다. 패러디의 知的 호기심이 그의 같은 연구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같이 과학자가 진심이 어떠한 것이냐는 知的 호기심에 이끌려 연구한 성과는, 언젠가는 인간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수 많은 아니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과학을 위한 과학이 인간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정에 배반당하고 있다. 옛날에는 흑색화, 최근에는 원자폭탄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은 연구 성과이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과학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의 행복은 커녕 파멸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항공기든 자동차든 과학 기술의 성과의 전부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현재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에 의한 자연으로부터의 엄격한

복수와 경고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사실로도 명백한 것이다. 그리고 원래 과학은 인간의 행·불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새삼 깨우치고 있다. 지금 인간을 위한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자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과학자가 知的 호기심에 의하여 연구한 과학의 성과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원자폭탄은, 그 원리를 밝힌 과학자에게 비난을 가할 것이 아니라 인간피해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인간성 문제이다. 원자폭탄의 원리도 원자력 발전과 같은 인간에게 유용한 면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한 분야인 물리학은 자연계의 보편 타당한 物理法則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라고 말하면 인간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처럼 보이나 물리학은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며 창조물이다. 그리고 물리학이 발전하는 방법은 그때의 사회환경이나 사상과도 깊이 관련되며, 물리학의 진전과정에는 인간으로의 과학자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다.

물리학은 물리학이란 학문 자체를 위한 물리학이 되어서는 안되며, 연구결과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물리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물리학은 인간성과 종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리교육은 미래에 보다 나은 사회인으로서, 보다 나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 교양으로서도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물리학자의 인간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인간성을 중시하는 물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범대학교수

잃어버린 주인의식 사소한 일에서부터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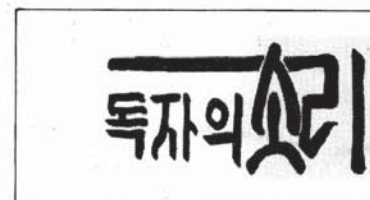
이래도 자칭 '엘리트'라 표현할 수 있을까?

흔히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상아탑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젊은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애기를 한다. 힘들게 대학이란 곳에 발을 붙인 이상, 우리 자신도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거리를 활보하곤 한다. 하지만, 자칭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사소한 일에서부터 주인의식이 결여되었음을 상기해볼 때 다시 한 번 상아탑과 지성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자판기 옆에 널려진 종이컵들, 잔디밭 사이로 무수히 보이는 담배꽂이들, 몇 발짝만 걸으면 바로 휴지통인 것을 만발치서 던져 휴지통 주위가 어지럽게 된 것은 너무나 흔한 광경이기에 오히려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그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의식수준을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학문의 본질과 탐구에 우선 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강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강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강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건은 비단 교수와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할 력소가 되어줄 깨끗한 강의실에도 있다. 잘 닦여진 칠판과 정돈된 책상들. 이것만으로도 강의실에 들어서는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회부얇게 날리는 분필 가루와 흐트러진 책상들, 심지어는 전 수업 시간에 쓰여졌던 수업 내용이 다음 강의가 시작되었을때까지도 그대로



濟大新報는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분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니 원고지 5매 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로 있어 교수님이 부랴부랴 지우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부얇은 분필 가루와 지저분한 낙서가 우리의 기분과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면 그 래도 무관심하게 방관만 해라 할런지 의문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때 까지 민해도, 교실은 우리 스스로가 항상 쓸고 닦으며 많은 아낌과 보살핌을 쏟았었다. 그것은 내가 공부하는 교실이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었

기 때문이었다. 강의실의 분필 한 조각, 책상 하나가 모두 내 것이요 우리 것이라는 생각을 한 는다면 감히 책상에 길자국 한 번 제대로 내지 못 할 것이다. 강의실이 내 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칠판을 닦고 책상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 사소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흐트러지게 해 줄까?

잃어버린 주인의식을 이런 작은 주위 환경의 인식으로부터 되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성혜 사회교육과

교수님 격려사에 할말있다

맑스시대의 가치관은 과연 무용지물인가

대학사회에서 특이점이 신념체계(belief-system, 가치관)라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큼 민감한 일은 없을 듯하다. 더군다나 모태학 학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학생회장의 격려사로 쓴 글에 대해서 이러한 이의제기는 금기사항에 가 까운것이다.

그러나 격려사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수구적이며 편견적인 의 미를 내포하는 글을 마주하고 그 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어 감히 이 글을 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주변에는 물구나무를 서서 세상을 거꾸로 보며 고종황제 시대나 마르크스시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를 전체의 내용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가치

관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87년 민주화대투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사회과학 서적의 출판과 이의 이론을 습득하여 갈등론적 입장에서 사회를 이해하려는 진보적인 지식인을 비꼬고 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민족지해행위의 우를 범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내가 좀더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사상을 수용한 대학원이었다면, 시냇물로 "가만 놔두지 못하겠다"라는 분노의 표출행위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경제지상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로 명명된 일대변혁의 시기에 지식인의 신념체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신념체계로 세상을

해부하고 학생들에게 우회적인 수단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교수님의 역설! "어 많은 자유와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슬로건이 역대독재정권이 소수의 치부를 위해 주장해온 통치이데올로기의 단면이다.

그 교수님의 논리 또한 이러한 슬로건의 재판에 불리하기에 심한 혐오감이 느껴진다.

에밀 뒤르케임이 실증주의를 완성함에 있어서 도덕으로서의 과학을 강조했다. 20세기초의 과학주의의 변질과 가치관 상실로 이어진 20세기말의 한국사회의 경제지상주의의 후자가 과연 지식인의 철학이여야 하는지를 교수님이 격려사사이에 변질된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생각해보게 한다.

송태경 어업학과

구속학우석방투쟁 남의일 아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교문을 들어서면서 혹은 우리학교 인문대학으로 올라가다 보면 참 느끼는 바가 많다.

개강된 지 얼마 안되어서 벌써 벌어지던 구속학우들의 투쟁과 내 나 집이후로, 대법원의 판례, 동원 회견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모임을 보면서 우리학교의 많은 학우들은 관심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분노와 들끓는 투쟁의 의지를 보아가면서 교문투쟁과 수업에 걸쳐 연좌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학우들의 처음의 분노는 의외로 당연한 일처럼, 형식 반복되는 일,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일로 여기는 만연적인 모습으로

변해 갔고 이에 뜻있는 학우들이 단식농성을 벌였지만은 상황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작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작년 역시 수차례에 걸친 학원침탈, 우리의 구심들이 깨져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었던 것임은 많은 학우들의 투쟁이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안타까움을 낳은 채 2학기를 마쳤었다.

우리 가슴 아픈 역사는 반복되지 말자. 우리의 근심이다. 우리의 학생회,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가 주인되는 자주적 학생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총운영위 속에서 투쟁방향의 모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이상 방편의 자제가 아니라, 학우들의 투쟁의 지를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내 곳곳에 붙여진 구속학우 석방투쟁에 대한 홍보물들이 찢어진 채로 있다. 비에 퇴색되고 지나가는 학우들의 발에 밟혀 짓이겨지는 홍보물들이 없는가 다시 점검하고 재부착하든지 하는 학생회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축제다! 조국의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며 우리속에서 민족·민중통화를 찾고 실현하는 그런 축제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많은 축제행사 플랜카드에 묻혀 져서 채 나누기는 구속학우 석방투쟁 플랜카드. 더이상 우리의 투쟁이 시기성, 일시성을 띠는 것을 증명하지말자. 더이상 우리의 구심들이 잡혀가는 것을 방관하지 말자.

강영미 국어국문학과

대학축제의 의미는?

요즘 각 단과별 축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듯 하다. 등교길에 즉 늘어난 플랜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누구든 그러하듯이 나 역시 '축제'란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떠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난 5월달에 처음 맞이했던 이라축제에 비하면 지금의 들뜸은 아주 미약한 것이다. 그만큼 아라축전에 거는 기대는 실로 엄청났던 큰 것이다. 고등학교 때에 말로만 들었고, 마음속으로 등경해 온 대학생활만이 느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지성과 낭만의 한마디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꿈으로 내 마음은 고무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라했던 나의 기대와 꿈은 축제의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실망과 허무함으로 바뀌어 갔다. 하루, 이를 대학은 술에 민취했고 모든 것은 흥청망청 제본연의 제도를 잃어갔고 사람들 또한 별의별 추한 행동들을 스텝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출해 냈다. 지금껏 내가 등경해 온 낭만의 축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것이었다.

이제 나는 축제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크다'라는 지, 난만의 크나큰 실망을 다시금 맛보지 않기 위함인 때문이다. 다만 이번엔 행해지는 축제가 단과별 행사이니 만큼 각 단과인들의 독특한 특유의 자랑거리를 볼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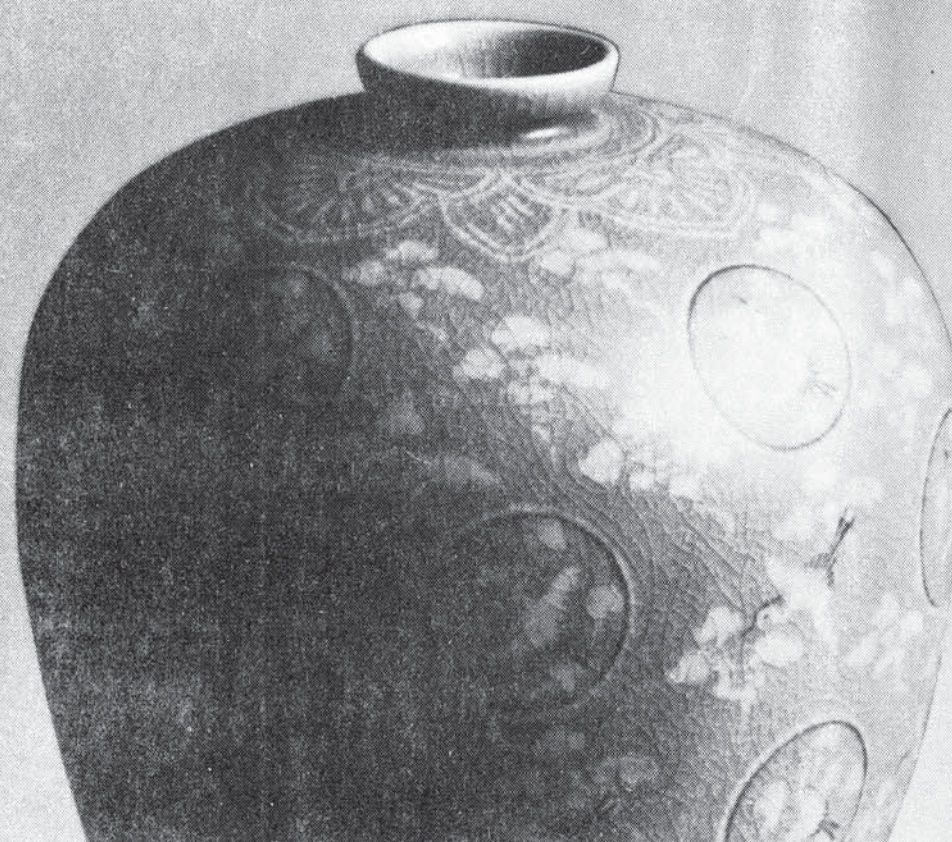
모쪼록 그동안 준비해 온 행사준비가 아무일 없이 잘 치워지고, 조용한 단과행사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숙이 사회학과

알림

본사에서는 도서관 1층로비, 2동 중앙강당, 학생회관 내에 독자의 소리함을 마련 하였습니다. 독자의 소리함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자의 玉같이 시린 빛을 보면

도자기를 바라보면, 청자나 백자의 그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도는 빛을 대하면, 그 빛이 거기에 있도록 맑고 옅은 빛과 심혈로 가마를 구웠을 어느 이름없는 도공이 생각난다.

대학생활을 생각하면, 가을 소나기 막 지나간듯 싱그러운 그 젊음을 떠올리면 그것을 보람으로 꽃피우기 위해, 학문의 터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어느 도공처럼 의뢰 10월의 빛을 지낼 사랑스런 대학인이 생각난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컴퓨터

강의시간 10월5일부터 11월 2일

개강!

10월 5일 (금)



- 프로그래밍 전문과정
- 기사 1·2급 대비
- MS-DOS, 전문워드프로세서, dBASE
- BASIC I, II, 기능사대비반
- 어린이컴퓨터과정

월드컴퓨터학원

위치 : 중앙로 주택은행뒷길 아세아탁구회관
전화 : 52-3321, 52-9120

대자협 건설해 대학발전 앞당기자

1. 들어가며

87년도 이래 대학가에서 주요쟁점중 하나로 부각된 것은 학원의 민주화·자주화를 위한 투쟁이었다. 특히 학원 구성원에 대한 재단의 온갖 횡포·불이익(학생들에게 있어 정당한 배울권 리마저 유기는 등)의 횡행과 내재화된 비리도 몸살을 일으킨다. 사립대학에서는 학원의 민주·자주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되었다.

지난 4월 총파업으로 시작된 세종대의 학원자주화투쟁은 학원의 휴업령·학내언론사의 휴간조치등을 비롯 수많은 진통을 겪었다. 약 5개월간의 투쟁기간동안 몇차례 학교측과의 공개협상을 통해 경제·복지적 측면에서의 합의를 보았으나 근본문제제기였던 총장직선제와 교수·교직원·학생이 학사운영에 참여하는 「대학발전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2월 27일 89명의 유급 대상자를 산출해 학원자주화투쟁은 또 다른 분기점으로 접어들어 앙상을 띠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교육적 모순의 표본임을 보여준 조전대의 경우는 「민족대학의 실험」이라는 기치 아래 학원자주화투쟁을 벌인 결과 재단의 독자적인 행정처리권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학자치운영회의」를 건설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주적·민주적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여건은 각 대학에서 재단 및 학교당국의 독자적인 학사운영이 아닌 교수·학생 및 교직원 역시 학사운영에 참여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낳았고 이로 인해 가장 대학자치운영회의(이하 대자협)건설 운동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 대자협이란

대자협건설운동이 각 대학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구적 역할을 한 조전대의 대자협구성시대를 통해 대자협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조전대에서는 지난 87년 1박 13일이라는 장기간의 농성·투쟁을 통해 88년 2월에 대자협을 구성·출발시켰다. 조전대에 의해 처음 건설된 대자협의 위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대자협은 민족대학의 건설을 위해 대학주체인 교수, 학부도, 동문,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기구이며, 향후 대학의 전방을 지배하는 것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즉, 이는 대자협이 대학주체들이 주체적으로 대학의 비민주적 모습을 극복하고 대학본연의 임무인 연구·교수·사회봉사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나가는 자치기구임을 말하는 것이다.

조전대는 개교후부터 계속된 사회제단운영의 비리를 비롯한 여러문제들로 인해 진통을 겪었던 만큼 현재 건설된 대자협은 신입총장을 추대하는 것은

물론 교과과정개편·교수채용문제 등 전반학사행정에 교수·학생·동문·학부도까지 참여해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 및 의견수렴기구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에 추론해 보면 대자협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학교당국 및 교수선에서 해결되던 학사운영(기성회비 내역의 비공개적 집행성적,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교양과목의 개설·지속 및 전공커리큘럼의 전공성적과의 비호응적 유관관계, 교수채용 등)에 학생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청산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에 각 사학들간의 협의·의결해나감으로써 계속 누적되는 학교당국, 교수들과 학생·교직원간의 불신 및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종래의 불안전한 주인의식·참여의식을 극복하고 대학내의 각 주체가 대학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사전에 불협화음으로 인한 마찰들을 방지할 수 있다.

3. 대자협건설의 의의

현재 조전대를 비롯 7개의 사립대학에서는 각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 의결기구 혹은 협의기구로서 대자협을 구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참고)

이런 현황에서 본교에서의 대자협건설 움직임은 작년 신입총장 선출기간을 전·후해 일기 시작했다. 작신총장 선출시 학생·교직원들의 참여주장을 유보하는 데안으로 「학교당국과 학생측간에는 신입총장의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대자협을 구성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신입총장이 취임된지 1년이 넘은 현재, 대자협구성은 고사하고 대자협이 구성될 때까지 교수협의회의·평의회·학생·직원협의회등이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다고 합의한 것과는 달리 여지껏 대자협구성에 대한 활동은 인북위 지도부내에서만의 관심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개강후 사범대학생회 소유의 자판기를 후생과에서 강제철거하는 사태로 인해 인북위에서는 소비조합의 직영화투쟁을 전개하면서 미비하나마 대자협구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 교	협 의 체 구 성 기 능
건국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학교·학생·직원
광운대	교수학생평의회 학교·학생
동국대	3차 연석회의 학교·교수·학생·직원
서강대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학교·교수·학생·직원
세종대	대학발전위원회 학교·교수·학생·직원
조전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교수·학부도·동문·학생
중앙대	대학발전위원회 학교·교수·학생·직원

90년 4월 9일 대자협구성을 위한 학교당국대신

이렇게 1년이 넘게 대자협준비위원회구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인북위에서는 「학교당국이 학생측에서 대자협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해오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비주체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교측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인 인북위에서는 대자협정당 시안을 마련해 놓고 학교당국과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인북위가 임시 상정한 대자협정당시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인북위에서 마련한 정당시안의 총칙에 의하면 대자협은 「대학의 주체인 학생, 교수,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기구임과 동시에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학최고결기구이며, 대자협을 토대로 본교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인북위에서 설정한 대자협의 위상은 최고의결기구이다. 그러나 본교 김영호총장은 「본교에서의 최고의결기구에는 전체교수회의이며 대자협은 각 대표들의 이익 즉, 교수대표는 교수들의 이익, 학생대표는 학생들의 이익, 교직원대표는 교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표명해 인북위의 뚜렷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의 대자협에 대한 시각은 「만들어 보아도 형식적일 뿐」이라는 비판적 태도에서 비롯된 관심·지원의 부족과 대부분의 학우들의 인식결여로 대자협이 구성될 가능성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4. 나오면서

이상에서 대자협의 일반적 성격과 본교에서의 대자협구성활동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본교에서의 대자협구성여부는 미지수이나 대자협이 본교에 구성될 실질적 활동을 이뤄낼 수 있다면 7천여 학우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종전 교수의 전공을 위주로해 교과목을 설정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학문 및 지역적 상황에 맞고 학우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1·2학년 을 위주로 개설되는 교양과목에서 일반선택을 해야하는 고학년의 학우들은

1학년생들과 같이 수강해야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과 자신의 관심도와 무관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문습득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여태까지 본교에서 교과과정은 각 단과대학교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의 학문적 욕구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아니라 본교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까지 정확히 설정돼 있지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실정 방향없이 교과목이 개설돼 왔다. 이런 현상하에서 대자협은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수공개채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작년 전자공학과 사태의 경우처럼 동일대학 동일학과 출신으로 구성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필요에서 뿐만아니라 대학내의 민주·자주화는 물론 자치적인 학사운영 및 교도의 의견수렴기구로서의 대자협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본교에 나타난 대자협 구성 준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인북위에서는 이미 마련해온 대자협정당시안을 갖고 학교당국과의 협의에 들어가기전에 7천여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자협구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대자협에 대한 아바 학우들의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가는 학우들을 붙잡고 「대자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모든 학우들이 「그게 무엇이니」, 「난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들을 할 뿐이다. 이런 것을 볼때 대자협건설의 필요성은 일부 지도부내에서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북위의 대자협건설투쟁에 있어 선행돼야 할 것은 이러한 전체의 인식공유작업이다. 즉, 인북위의 주인은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당국 역시 무작정 학생측에서 일정을 만들어와 협의해 보겠다는 태성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자협구성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협의의구가 아니라 절대 인된다」라는 고정지세만을 보여줄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자협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한다. 그런 연후에 학생측과 학교당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대표들이 개인적 의견을 교환하는 상태를 극복하고 진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진희 記者】

기획보도 (2) -임대시설 현황과 문제점

기숙사 식당등 직영화 바람직 세계속 대학운운보다...서점확충 더 시급

본사에서는 지난 397호(8월28일자)에 소비조합운영의 합리화방안을 골자 로한 내용을 게재했었는데 그 방안중의 하나가 임대시설 직영화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본교 임대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따른 문제점을 지적, 임대시설의 직영화의 현실성을 제고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구내서점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현재 학생회관의 매점옆에 참고만한 크기로 자리잡은 구내서점은 「대학서점」이냐 「대학의 얼굴」이란 말을 무색하게 해버릴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3년전까지는 학생회관 2층에 있다가 학생자치기구의 동아리방 설치로

경리과가 각기 다른 근거를 대고 있어 더욱더 의혹을 품게한다.

즉, 후생과에서는 「기숙사식당이 임대비를 낼 경우는 적자를 보게되고 마땅히 임대를 원하는 업자가 없어 무상으로 임대한것」이라고 하고 기숙사식당 측에선 「임대비무상과 수입의 흑·적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엇갈린 말을 하고 있으며, 경리과측에선 「기숙사식당은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사용 수익허가를 하지 않고(임대비 무상이라는 뜻) 기숙사 사생자치원칙성의 일환으로 사각장과 업자간의 약정으로 실비 변상적인 매식제로 운영토록 한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합당치 않은 이유이다. 왜냐하면 같은 기숙사관 내에 있는 기숙사매점 임대업자에게는 임대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리과에서는 기숙사식당의 무상임대가 사생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자치성격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으나 지난번 기숙사식당의 식비는 사생들 어느 누구의 의견수렴도 없이 급작스레 인상되어 일반학우들은 물론 사생들의 원성을 샀다. 이것이 사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주고 있는 것인가.

학교당국은 다음학기부터는 기숙사식당을 직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 기숙사식당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는데 「아마 기숙사식당의 주인은 무슨 큰 백이 있나보다. 임대료는 물론 전세금 수도세 하나 안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으니...」란 소리가 나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기숙사식당의 직영화는 시급하며 학교당국은 학생회관식당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점심시간만이라도 기숙사식당까지 서를 버스를 운행, 기숙사식당과 학생회관식당 양쪽에 각기 학생들은 분신사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셋째, 그외의 임대시설의 직영화. 농협과 우체국, 기숙사 및 도서관매점등을 학교에서 직영하여 이유의 화의유출을 막고 학교구성원들에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서 제시되었던 임대시설들중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거론된 않았어도 업자측의 불친절 및 미비한시설 등으로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예가 적지 않다.

최근 소비조합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 우선 당국은 적자운운 하지 말고 각 임대시설을 직영화시켜 효율적인 경영을 꾀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불복을 줄이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김진희 記者】

중앙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

본사에서는 독자여러분들의 학문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도서관에 새로 들어오는 책들을 묶어서 소개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위은이 씀)

▲총류

일식민지관계기관간행물총합목록/아세아경제연구소 소사자로부터
종합목록/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외국도서종합목록/대한민국국립중앙도서관
정보체계론/강성호, 박영사
프롤로그/김영택, 홍릉과학출판사
Auto Cad와 DATABASE/ Frederic H. Jones, Lloyd Martin, 영진출판사
d BASE IV/김경태, 영진출판사
XENIX V 매뉴얼/Cruz N. Santa, 영진출판사
PC통신인간/정영일, 영진출판사
인공지능/조동섭, 영진출판사
IBM PC 그래픽/이상진, 크라운출판사
Assembler language/김민주, 학문사
초등컴퓨터교육/서성보, 학문사

인공지능원론/유석일, 학문사
운영체제론/H. M. Deitel, 홍릉과학출판사
컴퓨터그래픽스/존빈스, 미전사
LAN입문/목현상 정영일, 영진출판사
매킨토시인간/이봉진 김경태, 기술정보
자료구조론/Ellis Horowitz, Sartaj Sahni, 홍릉과학출판사
여성과 발전/한국여성개발원

▲철학

철학/정진일, 형성출판사
존재의 대안/아서 O. 러브로이, 탐구당
중국고사성어사전/이원수, 문학출판사

▲종교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김용옥, 통나무

▲사회과학

토지·건설실무실례소송총람/법률실무연구회, 동민출판사
안보와 통일/대한반공청년회, 한국교육문화원
지역연구목록, 1989/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한국의 사회지표, 1989/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TV미술/한국방송공사
국제기업협상/장대환, 김영사
전북통계연보, 1989/전라북도통계담당관실
통계연보, 1989/남제주군
전남통계연보, 1989/전라남도통계담당관실
경남통계연보, 1989/경상남도통계담당관실
어음·수표의 법률상당/김중수, 법전출판사
채권회수의 법률상당/이재권, 법전출판사
부동산매매대차의 법률상당/장경학, 법전출판사
세법통람, 1990/오세경, 세법출판사
당신도 소송을 할수있다/주광일, 법전출판사
금전대차의 법률상당/주재황, 법전출판사

계약작성의 법률상당/양병회, 법전출판사
사업운영의 법률상당/김병준, 법전출판사
한국경제지표/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형사문제의 법률상당/김중원, 법전출판사
사랑과 결혼의 법률상당/정조근, 법전출판사
서울잡화사전/조종연, 정동출판사
남사법무연구회
북한주체사상의 본질과 실제/한국자유총연맹
통일논의의 제문제/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대왕사
노동통계연감, 1989/노동부
한국의 중소기업/중소기업은행조사부
경쟁법/John H. Agnew, 법무부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백서/동아일보노동조합
대한교육보육협심년사/대한교육보육협심회
공무원통계/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행정20년발자취/산림청
분단시대의 학교교육/교육출판회, 푸른나무
회계원리/김경수, 학문사
교육과정 및 평가/김형석

강봉규, 학문사
세무조사기법/이영우, 세정신문사
회계원리/김상호, 학문사
회계학/김상호, 학문사
교육과정론/김봉수, 학문사
법학원론/송민호, 학문사
사무자동화/배수진, 학문사
한국경제론/김경수, 학문사
사회복지/유비카
독점금지법강좌/경제법학회, 남사법무연구회
북한주체사상의 본질과 실제/한국자유총연맹
독점금지법강좌/경제법학회, 화해법리원서도감/농촌진흥청
청농업기술연구소
기아사실모년사/기아산업주식회사
국회회의록색인/국회도서관
'88업무통계연보/전문건설공제조합
인신보호의 법리/법무부
시계열분석법/김은정 최병진, 자유아카데미
전주통계연보/전주시기획담당관실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인구보건연구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심결집/경제기획원
회계학/고영국, 백산출판사

경영학연구/김석현 박준성 이수동, 신영사
형법총론/이석연, 대왕사
형법총칙, 상/김중원,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음, 희망, 사랑의 교육/유범산, 교육과학사
조선총독부통계연보/조선총독부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연구/신주백, 세진
남로당연구/김남식, 돌베개
경찰통계/조선총독부
세관년감/판세정
국방백서/대한민국방무부
책기회관리실
결산검사보고/감사원
참되고 몇몇한 한국인문학/전라남도교육위원회
한국민족총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8년도) 정부투자기관결산검사서/감사원
(1988년도) 결산개요/재무부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세법/조성원, 현암사
한국사회복지총람/장교봉사회복지회관, 장애자고용봉사회
한국사회구성체논쟁/박현채

조희연, 죽산
사회주의와 사회정책/Vic George, Nick Manning, 정음문화사
법전/조성원, 현암사
한국노동운동논쟁사/김용기 박승욱, 현암출판사
4.19와 통일논의/노준선, 사계절
정책평가/정경길, 법영사
사회복지의 역사/한국복지연구회, 이론과실천
중국근대의 혁명사상/마루야마 마츠유키, 예전사
신 행정법론, 하/이상규, 법문사
민주주의와 혁명/이종은, 영학출판사
한국의 정치체제와 정책/이경은, 인학대학교출판부
일제식민통치사/조선총독부정무국, 청아출판사
세법학총론/최명근, 세경사
법과 사회/로렌스 M. 프리드만, 법문사
법사회학/M. 레빈더, 박영사
민족통일투쟁과 조선혁명/고준석, 현
관공관련법규집/관공법규교재편찬위원회, 자유출판사
신 회사법론/최기원, 박영사

한국현대정치사의 구조와 변화/최경길, 까치
관공관련법/유문기, 관공관련연구위원회
상법개설/손주찬, 박영사
어음·수표법/정동운, 법문사
국제사법상의/서희원, 일조각
법학총론/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민법대의, 전/정경학, 법문사
한국노동법/박상평, 대왕사
국제사법요론/김명기, 법지사
물권법론/김용한, 박영사
관공관련법규집/관공법규교재편찬위원회, 자유출판사
관공관련법/이근, 학문사
인간·국가·전쟁/케네스 월츠, 소나무
관공관련법/최태광, 자유출판사
신 관공관련법/박석희, 명문출판사
위기의 20년/E. H. 카, 아세아문화사
세계정치론/C. A. 케일리 Jr, E. R. 윌코프, 법문사
대한민국헌법법령집/한국법제처

독문활용연구/김운섭 김광
요, 삼영사
우당선생천자동사/윤희구,
상신전업

본교학생운동의 실태(1) - 조직과 노선

보편성에 치중 독창적 투쟁결여

학내와 지역문제에 눈 돌려야

최근들어 본교를 비롯 각 대학에서 NL·PD논쟁이 급전전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각 과 노선의 전반적 이해를 담보해내고, 본교 학생운동의 투쟁방향과 성과, 조직형태 등을 소개, 그 맥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의 필자·대중이 보충하리라 믿으며 독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역은이슬>

작년에 이어 올해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노선 설정으로 인한 대중지지기반의 약화와 지도구심의 부재가 나타나 일반학우들로부터 우려의 소리가 높고,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0년 총학생회 선거 시 일시적으로 드러났던 노선 분화가 5·9반민지당 투쟁이후 전면화되기 시작, 노골적인 자치기구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한국변혁운동에 있어 선봉의 역할을 해온 학생운동에 대해 실망스런 인식을 주고 있을 뿐더러 지지기반의 기저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본교의 정파분화는 사실 88년을 기점으로 감정적 운동논리에서 과학적 운동논리로 비약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80년대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87년의 6월항쟁을 거치면서, 전국적 조직의 필요성 대두로 한국학생운동에 큰 획을 그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87년 8월 17일, 투쟁을 통해 학우대중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1

명(NDR)파로 불리우는 자민과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 일명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NLPDR)파로 불리우는 민

민논쟁이 구체화되고 실천화되는데 본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민주가 제시하지 못했던 민족통일의 구체적방법과 경로를 「자민투」와 「민민투」가 논쟁속에

획 측 동맹세력의 책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면서 성립되고 있다.

통일논의에 있어서도 이런 골격은 유지되어 자민과 민민은 각각 독자적 노선을 걸었다.

「자민투」는 한국변혁운동의 과제를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일로서 명확히 제시하고 식민지의 상태를 미국의 축출로써 극복하고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서 자주화·민주화·통일이라는 3가지 전술고리를 설정해놓고 통일운동을 당면의 투쟁에 있어서 중심고리의 하나로 바라보고 독립적·자주적 통일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반해 「민민투」는 파시즘 통치를 민중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변혁의 임차적과제로 인식하고 통일을 이러한 변혁이후의 과제로 바라본다. 이때에 이르러 학생운동은 통일문제를 변혁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경로까지 제시하게 되면서 대중적 운동으로서 확산시키려 노력하게 된다.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방법에 있어 '환상적 통일'의 논이 아닌 '조금도 주저할 수 없는 민족의 아픔에 대해 미·일·영·미·독·독의 반통일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대중적 지평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주적 교류를 확대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결국, 자주적 교류의 확보와 반통일세력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민족통일성을 확대하는 문제로 귀결됐고 본교

<표1> 전략계획에 따른 자민·민민 비교

자민투		민민투	
현 남한사회의 사회구성체적평가	예측국가 동정자본주의사회 「국가독점자본주의」 측면 강조	신식민지사회 「식민지」 측면 강조	
당면 주요모순	파시즘·관료자본과 민중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민중간의 모순	
당면 예비혁명적 전략목표	반제·반파쇼 투쟁 民族共和國 수립	주제국주의 축출(파시즘타도) 민족민주주의의 정권수립	
혁명주체군설정	프롤레타리아트단속 하의 勞農兵連合과 그 속에 우리반공 민족노조, 해방투쟁대	프롤레타리아트단속 하의 勞農兵連合과 그 속에 우리반공 민족노조, 해방투쟁대	
보조역량	민중·도시민·전보력청년학생	전보력청년학생과 이념리, 소색사파계 등 대국적 민족부조조	
상대에 대한 입장	자민투를 右傾의 기회주의, 개량주의 등으로 대조	민민투를 左傾의 영웅주의, 모험주의 등으로 비난	

백안화도의 진정한 지도구심으로 자리매김함과 더불어 사상이나 정치적 입장을 단일화하고 설혹 다르다하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의 공통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된 기운으로 학생운동을 나가기게 한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속에서 86년부터 시작된 「반제·반파쇼 민족 민주투쟁위원회」, 일명 민족민주주의혁

서 발전적으로 전개함에 있어, 본교에서도 서로 노선논쟁을 벌이며 학생운동을 이끌어갔던 것이다. <표1>

이같은 양대분파의 논쟁은 한국사회를 어떤 구성체로 보느냐하는 기본관점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며 이에 따라서 당면한 주요모순의 규정, 당면 예비혁명의 전략목표 및 혁명역량의 배치

의 학생운동은 전대협의 기치아래 이루어져 갔다.

그런데, 최근 또다른 논쟁이 학생운동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 소위 민족해방계열(NL)과 민족민주계열(PD)논쟁으로, 논쟁의 기초는 자민·민민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맥과 내용의 확보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PD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치기구는 총학생회 및 법정대학생회 등이고, 그외는 NL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략적으로 각 계파의 사회혁명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참고>

그러나 이러한 NL과 PD의 노선차이가 단지, 학생운동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해계모니정당의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있으며 노선차이는 종파주의의 발로이기보다 당파성의 차이에서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혁명주의와 혁명적 감성과 혁명적 전술에서 통일하고 단결해야함이 당위적의 루로 존재한다. 즉, 언제나 그랬듯이 통일·단결의 원칙이 NL·PD논쟁전반에 관철되어야 한다. 대동단결론이 기회주의자의 조작상 도피책일지라도 공인정규이 계속적으로 학생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분열책임을 회색하고 있고 '이념과 사상 정치적 입장 등 모든 이론은 퇴색한다'는 명제를 각인할 때 각 계파는 먼저 정파

아라詩壇

유리진열대의 꽃

국어교육과 4년 김민아

1
이 세상 꼬리표 달고 나온 것은 모두가 어디론가 팔려가고 있었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팔려가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어 아니, 모든 게 물건이었지

2
유리진열대의 꽃은 숨막힐 듯 두꺼운 문을 바른 창너는·부·시·계·술·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개 비무장지대의 축축한 어둠 속으로 한 다발의 묵은 욕정이 싹틔들려 잉기어 들썩인다

3
나를 가져가세요 화사한 청춘이 다 가기 전에 몇 개의 백동전으로도 몸은 너무도 쉽게 열려요

목하 성업중이예요

<표2> 한국민족해방운동의 기본입무

임무	기본목표	주타격대상	과제	상호관계
자주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 자주권을 확립	미국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이 세가지 임무는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주의는 민족해방운동 단계에서 주된 대상이며 궁극적 대상은 미국이므로 자주화임무가 기본축이 된다. 또 세 가지 임무는 다시 '혁명의 자주화' 투쟁, '혁명의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 축전투쟁' 등으로 추가적인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2개의 한국정부를 자주·평화·사회정치생활의 원칙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통일과정에 돌입	미국	남한헌법 개정수립	

<표3> 민족민주주의혁명의 기본입무

임무	기본목표	주요타격대상	중심과제	상호관계
반제	제국주의자본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립하여 민족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게 함	제국주의자본과 파쇼세력, 군 안락 독점 자본의 신식민주의	민중민주주의의 혁명을 완수하여 완전한 무계급사회로 이끄는 것	각 기본임무는 근본적으로 신식민주의가독점자본주의사회의 기본모순인 총노동과 총자본 사이의 모순, 군 안락 독점 자본의 세력과 민중세력 사이의 모순을 바탕으로 하여 결합하고 있는 동일한 운동의 주요한 성격이다.
반파쇼민주화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적 민주화를 확립하게 함	민중민주주의의 혁명을 완수하여 완전한 무계급사회로 이끄는 것	민중민주주의의 혁명을 완수하여 완전한 무계급사회로 이끄는 것	
조국통일	민중해방의 원칙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민족권을 세움	민중민주주의의 혁명을 완수하여 완전한 무계급사회로 이끄는 것	민중민주주의의 혁명을 완수하여 완전한 무계급사회로 이끄는 것	



○...집안 관리는 철저히 학내 주요건물에 일반인들에 의해 부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요일마다 본교 건물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리라 믿어보나 학교당국에서는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는 2동중강당이 일반 종교단체의 예배장소로 사용되고, 332강의실도 이 목적으로 자주 이용됨.

허가도 없이 공공건물을 사용한 종교단체의 양심도 문제지만 학교당국도 관리에 소홀한 점을 반성하심.

○...고향생각

지방대 틀을 벗어보는 생각은 현해탄 너머에 있는 우리 제주인들에게도

며칠전 在日제주청년회가 본교에 1백만엔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는데, 한 청년회원은 우리학교가 다른 일류대학 못지 않게 발전해 「우리자식들도 고향에서 대학을 다닐 때가 오기」를 소망.

아라학우들이여! 해외동포의 당부에 부응하는 길은 학업에 더욱 정진하는게 아니겠노?

○...청천하늘에 시멘트세례
점심을 먹고 난 뒤 한가롭게 잔디밭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학우들의 머리위로 무서운 굉음과 함께 시멘트세례가 내려, 놀란 아라구 쫓아가 보니.

인문대학 3층 김의실방수공사를 하면서 벽을 뜯어낸 시멘트 덩어리를 공사장 인부들이 유리창을 통해 밑으로 그냥 쏟아버려

고향생각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던 학우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

거꾸로 연구실과 강의실에선 먼지로 인해 유리창을 열 수가 없고 엄청난 소음때문에 정신집중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시멘트를 떨어뜨리는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던가 도르래를 이용해 조용히 내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사중단 요구를 할 수 밖

에 더 있겠소.
○...좋은 학교 만들기
강의중에 웬 최후반 쏜 소리가 들려 일어나보니.

포크레인 소리등 공사에 의한 소음이 그것.

번지르르한 학교건물보다는 실속있는 강의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 방학때는 뭐 하다가 개강이 되어서야 공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가오만, 이왕이면 강의시간만큼은 피해가면서 좋은 학교 만들기 동참하는 게 어떨겠소?

○...작은 정성 큰 사랑
7천여명의 백원원내면 7십만원이 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등교길에 「사랑의 실천」을 외치며, 싹싹살이가 물에 잠기고 가족을 잃게한 수마가 할퀴고간 주재민들의 상체를 보듬기 위한 모금함을 들고 선 학우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자의든 타의든 주머니를 뒤지며 모금함에 동전을 넣는 모습이 대견하더라.

본도가 수해를 입지 않아 소홀해지기 쉬운데 자기 일처럼 작은 정성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모인다면 수해극복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소?

밀어라 밀어라
풍년들게 밀어라!

이차저차사실하며 흥겹게 꼬아서 온동네 모으면 아름드리 동아줄—등글레고 만들고 가동나무 받쳐서 농악대 앞세우고 어깨고고 싸워보자. 우리 동네 우두머리 줄패장 태워놓고 밀어라 밀어라 풍년들게 밀어라. 돌아라 돌아라 풍년들게 밀어라. 하늘높이 퍼져서 풍년소리 힘을 얻어 땀뽀들 어깨에 줄패장 신이 난다. 이마에 붉은 땀방울 맺히고 한마당의 잔치판에 올래도 풍년일세.

우리의 민족놀이는 민중 공동체적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 민중의 땀과 삶의 결집이 풍년을 가원하고 대동단결을 염원하는 놀이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놀이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어제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지발전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긍지 ②광산 고씨들

전남 광산지방에서 정월 대보름날 마을을 동서로 나누어 실시하던 농경의식의 민속놀이. 그 해 농사의 풍년여부를 점치는 의식과 결여운 마을이 평화 화합을 즐기는 대동놀이.

